

카지노 도박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폐해에 대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

Social Welfare Strategies

for Decreasing Harmfulness Caused by Using Illegal Private Loans of Casino Gamblers.

Young Ho Kim*, Yong Geun Kim**

Department of Addiction Rehabilitation and Social Welfare, Eulji University,

553 Sanseong-Daero, Sujeong-gu, Seongnam, Gyeonggi, Korea.

Kangwonland Addiction Care Center, 265 High1-Gil, Sabuk-Eup, Jeongseon, Gangw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xcessive gambling and illegal private loan problems by comparing two different types of casino visitors; gamblers who use illegal private loan to gamble and those who are not (normal gamblers). For this purpose, the data was analyzed by a survey <actual condition survey on casino gamblers> which was distributed at KLACC, to those who visited Kangwonland Casino during the month of June in 2013.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llegal private loan gambler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had certain characteristics ; a higher rate of males, residing in the Kangwon Province, Gambling Severity, misuse and abuse of drugs and alcohol, suicidal attempt, divorce, domestic violence, unemployment and lower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esents the alternatives to decline the harm of gambling; regulation reinforcement on illegal private loans, intervention and the actual conditioned survey on Kangwonland Casino addicts, and the discussion of the policy of responsible gambling.

Key words: Illegal Private Loan, Harm of Gambling, Casino addicts, Responsible Gambling.

* The 1st author. Tel. +82-31-740-7475. Fax. +82-31-740-7389. E-mail. kyh1212@eulji.ac.kr

** Corresponding Author. Tel.+82-33-590-6065. Fax.+82-33-590-6060. E-mail. jesusworker@kangwonland.com

Submission & Publication Process

Received: Mar. 9, 2015 / Revised: Apr. 4, 2015 / Accepted: Apr. 10, 2015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 중 불법사금융 이용자와 일반 카지노 도박자와의 비교를 통해 과도한 도박과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2013년 6월 KL중독관리센터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카지노 고객 실태조사>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남성의 비율과 강원도 거주 비율이 더 높았으며, 대조군에 비해 자신의 도박문제를 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술과 약물 오남용, 자살사고와 자살시도 경험, 이혼과 가정폭력, 실직 경험이 더 많았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박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강화,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입, 그리고 책임도박 정책 실현에 대한 논의가 기술되었다.

주제어 : 불법사금융, 도박폐해, 카지노 장기체류자, 책임도박

1. 서론

도박은 불가피한 사회적 현상일 수 있으며, 양면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도박을 오락으로 여겨 즐기고 있으며, 사행산업의 저항 없는 조세 확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도박이 비합리적 행동이며, 병적인 중독을 유발함으로써 개인, 가족, 더 나아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우려하고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10; 이태원, 2001: 50). 도박중독은 개인에게는 우울증, 신체적 질병, 자살, 별거와 이혼, 가정폭력, 경제적 파산 및 사회적 고립 등을 유발하고 가족 및 친지들에게는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에 대한 윤리의식을 무너뜨리고 생산성 저하, 실업 가능성 증가, 살인, 폭력범죄 및 사기, 절도, 그리고 돈세탁과 고리대금융 성행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9: 252).

도박의 폐해 중 최근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에서는 불법사금융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보고되고 있다. 카지노 인근에서 현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모집책(일명 ‘빼끼’)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도박중독자들이 이들로부터 불법사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재산을 탕진하고 카지노 노숙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적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김용근, 2014). 카지노 주변의 불법사금융에 대해 강원랜드는 호객꾼들이 사채와 콤프¹⁾같은 물론 숙박업소 호객행위와 불법 대리운전 연결 호객행위를 하는 등 카지노 주변의 모든 불법 행위를 ‘패키지’로 하고 있다고 판단해 호객행위 자체를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뉴시스, 2014. 1. 15.).

그러나 카지노 이용자 중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돈을 잃은 사람들, 더 이상 돈을 벌릴 곳이 없는 사람들은 게임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장 돈이 없을 때 오늘이 아니면 잃은 돈을 복구할 수 없다는 생각에 대책 없이 일단 돈을 쓰고 보자는 마음이 앞서게 된다.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누군

1) 콤프(Comp)는 Compliment의 약자이다. 카지노 이용금액에 대한 일종의 마일리지 포인트이며, 이를 가지고 강원랜드 인근에서 식사, 숙박 등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가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거나 부추기면 자연스럽게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된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보는 카지노 주변의 전당사, 현수막, 광고명함 등을 통해 카지노 도박자들의 무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다(김용근, 2014: 81).

카지노 도박과 불법사금융은 ‘악어와 악어새²⁾’의 관계에 비유되는데, 그러나 오랫동안 공생관계로 알려진 내용이 사실은 ‘기생관계’였음이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카지노 도박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카지노 도박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따라서 최근 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의 성장의 그림자 속에서 기생하며 그 세력을 키워 수많은 도박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파멸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인 불법사금융의 폐해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지노 도박자 중 불법사금융 이용자와 일반 카지노 도박자와의 비교를 통해 과도한 도박과 불법사금융의 폐해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도박중독의 폐해

지금까지 도박중독의 폐해를 설명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도박의 형태와 집단의 특성에 따라 병리적 도박자의 비율과 특성을 파악하는 하는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이홍표, 2002, 2003a, 2003b; 이민규 외, 2003; 이영분·이은주, 2003; 채규만·이홍표, 2004; 이태원, 2004; 김교현 외, 2005; 이인혜, 2006; 손덕순·정선영, 2007).

도박중독의 폐해는 개인 문제, 가족 문제, 재정·법률적 문제, 사회적 문제의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도박중독은 개인적인 심리·정서적 문제들을 유발한다. 도박중독자들은 우울(이민규 외, 2003; 이홍표, 2002a) 및 불안(Grant & Kim, 2002; 김경훈·배정규, 2007), 자살사고(Gupta & Derevensky, 2002; Pierre R., 2011; Phillips, *et. al.*, 1997)와 낮은 자존감(Grant & Kim, 2002)의 문제를 가질 수 있다. 또한 도박중독은 대개 음주, 흡연, 약물사용 등과 같은 다른 행동상의 문제들과 심리적인 문제들과 함께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도박문제를 더 악화시키거나 반대로 도박중독이 이 문제들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김영호, 2011; Griffiths, 2007; Baldo, *et. al.*, 2006; Welte, *et. al.*,

2) 악어새가 이빨을 청소하며 먹이를 얻고 그 대가로 악어 입 주변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므로 서로 이익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오랫동안 과학과 상식처럼 회자되고 있다. 이 공생 이야기에는 악어에게 이빨이 생존을 위한 주요 수단이어서 악어새 같은 청소부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깔려 있다. 하지만 악어는 평생 3,000개가 넘는 이빨을 교환하므로 악어새 같은 별도의 치과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MK뉴스, 2012. 2. 8.)

2004; Lesieur, *et. al.*, 1991; Lesieur, *et. al.*, 1986).

둘째, 도박중독은 직간접적으로 가족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도박중독은 가족 간의 의사소통문제, 자녀문제, 부부와 자녀에 대한 가정폭력, 역기능적인 가족역할, 이혼 등과 연결된다(채정아, 2014; 이영분 외, 2003; 김진숙, 2011). 가족 가운데 도박중독자가 있을 경우 문제성 도박행동을 보일 위험성이 더 크고, 감옥에 투옥중인 문제성 도박자의 32%는 아버지가 도박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roductivity Commission, 1999). 미국의 경우 도박중독자의 53%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홍표 외, 2013), 국내의 경우도 도박중독자 배우자의 40% 가량이 이혼과 별거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심진현, 2002), 습관성 도박자 10명 중 9명이 가정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9.).

셋째, 도박중독자는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도박 빚 등으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은행이나 카드회사에서 돈을 대부한 뒤 이를 갚지 못하여 제2·제3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메우다가 채무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또한,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고, 실직 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되거나 노숙자가 되기도 한다(이홍표, 2002; 박철호, 2008; 채정아, 2014: 13).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몰락과 사회적 지위의 하락은 도박중독자의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한다(고은애 외, 2006). 도박에 필요한 자금을 유통하기 위해 도박 이용자의 50% 정도가 사기, 횡령, 부도수표 발행, 세금포탈, 절도, 타인카드 무단사용, 카드깡 등의 범죄로 연결된 경험이 있으며(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7.), 신용불량과 민·형사상의 고소 고발 등 법률문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박중독자의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가능성이 높았다(이재훈, 2003; 이태원, 2006; 손덕순·정선영, 2007; 김미선, 2011).

넷째, 도박은 한탕주의 심리로 합법 사행산업의 레저기능을 저해하고, 노동의 의미와 근로윤리를 상실하게 만든다. 또한 절약이나 근면과 같은 가치에 비해 운이나 우연에 의한 이익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도록 유인하는 특성이 있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9.). 도박중독자의 상당수는 도박 참여 혹은 도박에 대한 충동으로 근로의욕의 저하, 일과 직장에 대한 권태감, 잦은 결근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직업상실의 문제로 귀결된다(고은애 외, 2006). 도박중독의 생산성 저하와 사행심리 조장, 한탕주의 문화는 주변산업의 고용감소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다. 미국의 경우 문제성 도박자 1인당 연간 사회비용에 대한 추정액은 6,300달러로 조사되었고, 전체 사회적 비용은 연간 190억 달러로 이는 미국 정부가 도박 산업으로 거두어들인 전체 과세수입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9: 12).

2. 카지노 주변의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혹은 ‘사금융’은 정부당국에 의해 정식으로 해당 금융행위를 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은

사채업자에 의해 금전의 대부, 금융중개, 알선 등의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금융시장이다. 여기서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유형, 거래조건, 시장진입 등은 정부에 의해 규제되거나 과약되지 않아 불법, 탈법적인 금융거래 또는 탈세 현상이 발생한다(정은근, 2002: 3). 일반적으로 불법사금융의 이용자는 저소득·저신용자로 금융소외계층으로 불린다. 이들은 대출 등 제도권금융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들에 대해 불법대부업체들은 이자제한법의 연 25% 이상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한 규정도 무시하고 고금리는 물론이고 빚을 받아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채무자를 괴롭힌다. 이를 '약탈적 대출(Predatory Lending)'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내일신문, 2015. 02. 23).

강원랜드 카지노를 출입하는 도박자들 중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불법사금융을 소개하고 현금을 빌려주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김용근, 2014). 불법사금융의 경우 전주는 뒤에 숨어있고 전주와의 연결은 모집책(속칭 '빼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이혁구 외, 2014). 김용근(2014)은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지역의 도박자들이 이용하는 불법사금융의 종류를 불법사채, 전당사, 카드깡, 소액결제, 핸드폰깡, 콤프깡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불법사채. 이는 도박장 은어로 '꽂지'라고 하며, 담보가 아닌 '면(面, 얼굴)'을 보고 빌려준다는 의미로 '면 꽂지'라고도 한다. 신용조회는 카지노 인근 지역에서 의료보험 가입조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불법사채(꽂지)의 이자는 일주일에 5~10%의 이자를 받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한다. 둘째, 전당사. 이는 허가(신고제)를 받아 운영하며, 주로 자동차와 귀금속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다. 그러나 강원랜드 주변지역에서 법정 이자를 제대로 지켜서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셋째, 카드깡. 이는 고객이 카드 한도 내에서 필요한 금액만큼 물건을 카드로 구입하면 카드깡 업자와 연결되어 있는 위장 매입처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도박자는 현금을 받아간 후 카드 이용대금을 갚아가는 구조이다. 넷째, 소액결제. 이는 핸드폰 소액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채를 하는 방법이다. 카드깡과 마찬가지로 위장 거래처를 확보해 놓고 핸드폰 소액결제 시스템으로 매입을 한 것처럼 꾸민다. 30만원을 소액결제하면 18~20만원을 도박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위장 매입처, 불법사금융업자, 빼끼 등이 배분한다. 다섯째, 핸드폰(스마트폰)깡. 이는 신형 스마트폰을 할부로 구입한 후 이를 되파는 식으로 현금을 확보한다. 스마트폰을 통상 100만 원 정도의 할부로 구입하면 이용자는 20~25만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콤프깡. 콤프(Comp : Compliment)는 카지노 이용금액에 따른 마일리지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강원랜드 카지노는 지역상권의 발전을 위해 폐광지역의 식당, 숙박업소 등지에서 카지노 고객들이 카드를 통해 콤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콤프깡은 콤프를 통해 허위매출을 발생시키고 이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김용근, 2014: 81-84). 김용근(2014)의 연구에 따르면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서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금융을 함께 이용하였으며, 자주 많이 이용하는 사금융이 가장 큰 피해를 입혔는데, 그 순서는 불법사채(꽂지) 이용 경험이 5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당사 37.0%, 카드깡 34.2%, 소액결제 16.9%, 스마트폰깡 16.4%, 콤프깡 15.5% 순이었다. 또한 이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함에 따라 입게 되는 피해는 첫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의 문제, 둘째, 잃은 돈을 회복하기 위한 다시 도박에 빠짐, 셋째, 신용불량 혹은 파산하게

됨, 넷째, 강제추심으로 인한 고통, 다섯째, 강원랜드 카지노 노숙자로 전락함, 여섯째, 자살충동이 일어남 등이었다. 결국 도박중독자의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 불법사금융 이용은 도박의 폐해를 보다 심화시켜 도박중독자의 재기를 막으며, 이들이 카지노 주변을 떠나지 못하고 카지노 노숙자로 전락하게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2013년 6월 1-2일, 4-5일 총 4일간 KL중독관리센터에서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카지노 고객 실태조사>의 설문조사 자료 일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은 일반적 특성 5문항, 도박의 폐해 경험유무 6문항, 현재 삶의 만족도 1문항, 자기인식 도박심각도 1문항, CPGI 9문항 등이다. 이중 CPGI(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는 캐나다에서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새롭고 시사성 있는 문제도박 측정도구로 개발되었는데(Ferris & Wynne, 2001), 이 척도는 세계적으로 비교 가능한 최신 유사 연구가 많고, DSM-IV 진단의 측정 결과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문제도박의 12개월 간 유병률을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CPGI 문항 중 도박중독 유병률을 진단하기 위한 9개의 문항인 PGSI(Problem Gambling Severity Index)이다. 이 도구의 답변은 ‘거의 항상 그렇다’(3점), ‘대체로 그렇다’(2점), ‘간혹 그렇다’(1점), ‘전혀 아니다’(0점)로 구성되어 있는 4점 리커트 척도이다. 척도상의 분류는 0점: 비문제도박, 1~2점: 저위험 도박, 3~7점: 중위험도박, 8점 이상: 문제도박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 자료 1,177명 중 분석에 부적합한 15명의 자료를 제외한 1,162명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불법사금융 이용경험 유무에 따라 불법사금융 이용집단과 대조군(일반 카지노 도박자)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와 독립표본 t검증,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불법사금융 이용자와 일반 카지노 도박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표 1>에 나타난 것과 같다. 조사 대상자인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의 남녀 비율은 67.5% : 32.4%인데,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남녀 비율은 82.2% : 17.8%, 대조군(일반 카지노 도박자)의 남녀비율은 64.1% : 35.7%로 나타나, 대조군에 비해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남성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chi^2=26.788, p<.001$). 거주 지역에 있어서도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강원도 거

주가 20.5%인데 비해 대조군은 9.8%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0.151$, $p<.001$). 현재 혼인상태는 불법사금융 이용자가 대조군에 비해 미혼 27.9% : 19.2% 이혼 18.3% : 5.9%로 미혼 비율이 약1.5배, 이혼 비율 약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53.362$, $p<.001$). 최종학력은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서 고졸 비율(48.6% : 35.5%)은 높은 반면에 대졸(43.6% : 51.4%)과 대학원 이상(4.1% : 8.4%)의 학력은 더 적어서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학력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chi^2=14.791$, $p<.01$). 고용상태는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정규직 비율은 낮고(30.2% : 42.9%), 비정규직(19.5% : 11.9%)과 임시직(3.9% : 2.8%)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직자(23.9% : 11.8%)는 대조군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카지노 도박자에 비해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고용이 매우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다($\chi^2=35.359$, $p<.001$).

<표 1> 불법사금융 이용자와 일반 카지노 도박자의 일반적 특성의 차이

변수	속성	전체	집단구분		χ^2
			불법사금융	대조군	
성별	남자	784(67.5%)	180(82.2%)	604(64.1%)	26.788***
	여자	376(32.4%)	39(17.8%)	337(35.7%)	
	무응답	2(.2%)	0(.0%)	2(.2%)	
거주지역	수도권	613(52.8%)	101(46.1%)	512(54.3%)	20.151***
	강원도	137(11.8%)	45(20.5%)	92(9.8%)	
	비수도권	412(35.5%)	73(33.3%)	339(35.9%)	
현재 혼인상태	미혼	241(20.8%)	61(27.9%)	180(19.2%)	53.362***
	기혼	774(67.0%)	108(49.3%)	666(71.1%)	
	이혼	95(8.2%)	40(18.3%)	55(5.9%)	
	재혼	15(1.3%)	2(.9%)	13(1.4%)	
	기타	31(2.7%)	8(3.7%)	23(2.5%)	
최종학력	중졸이하	51(4.4%)	8(3.7%)	43(4.6%)	14.791**
	고졸	439(38.0%)	106(48.6%)	333(35.5%)	
	대졸(재학)	577(50.0%)	95(43.6%)	482(51.4%)	
	대학원(재학)이상	88(7.6%)	9(4.1%)	79(8.4%)	
고용상태	정규직	433(40.5%)	62(30.2%)	371(42.9%)	35.359***
	비정규직	143(13.4%)	40(19.5%)	103(11.9%)	
	임시직(아르바이트 등)	32(3.0%)	8(3.9%)	24(2.8%)	
	무직(퇴직 포함)	151(14.1%)	49(23.9%)	102(11.8%)	
	기타	310(29.0%)	46(22.4%)	264(30.6%)	
합계		1,162(100%)	219(18.8%)	943(81.2%)	

*** $p<.001$ ** $p<.01$

2. 불법사금융 이용자와 일반 카지노 도박자의 도박관련 폐해의 차이

불법사금융 이용자와 일반 카지노 도박자의 도박관련 폐해의 차이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자신의 도박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다($t=12.048$, $p<.001$). 대조군은 평균적으로 자신들이 저위험

도박자(도박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수준으로 도박을 하고 있다)에 해당된다고 인식한 반면,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스스로를 중위험 도박자(도박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에 해당된다고 인식하였다. 실제 CPGI 점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t=14.005, p<.001$), 대조군인 일반 카지노 도박자의 평균이 5.17점으로 중위험 도박자에 해당되었고,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평균은 12.31점으로 문제성 도박자(도박으로 인해 부적응적인 결과가 발생했고 도박행동에 대한 조절력을 상실함)의 절단점인 8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오남용 및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자신의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술이나 약물을 오남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가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6.428, p<.001$),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자신의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자살을 심각하게 생각하거나 시도한 적이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6.285, p<.001$). 가족과 관련해서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기혼자의 경우 자신의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이혼의 위기에 처하거나 이혼을 한 경우가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t=-6.279, p<.001$),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자신의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가족에게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5.010, p<.001$). 직업생활과 관련해서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자신의 도박문제와 관련하여 실직 위기에 놓이거나 일을 그만 둔 경험이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t=-8.397, p<.001$). 마지막으로 현재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도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11.419, p<.001$).

<표 2> 불법사금융 이용자와 일반 카지노 도박자(대조군)의 도박관련 피해의 차이

변수	집단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자기인식 도박심각도	불법사금융	217	2.54	.990	12.048***
	대조군	930	1.67	.838	
CPGI	불법사금융	203	12.3103	6.74333	14.005***
	대조군	893	5.1725	5.64966	
도박문제 관련 술/약물 오남용 유무	불법사금융	219	1.70	.460	-6.428***
	대조군	940	1.91	.290	
도박문제 관련 자살사고와 시도 유무	불법사금융	216	1.70	.458	-6.285***
	대조군	937	1.91	.289	
도박문제 관련 이혼위기 유무	불법사금융	158	1.66	.476	-6.279***
	대조군	759	1.91	.293	
도박문제 관련 가정폭력 경험 유무	불법사금융	218	1.77	.424	-5.010***
	대조군	939	1.92	.276	
도박문제 관련 실직 경험 유무	불법사금융	218	1.61	.489	-8.397***
	대조군	940	1.90	.300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	불법사금융	219	2.21	.710	-11.419***
	대조군	939	2.80	.690	

*** $p<.001$, ** $p<.01$

3.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불법사금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 카지노 도박자(0)와 불법사금융 이용자(1)를 두 군으로 나누어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성별과 삶의 만족도, 자기평가 도박심각도, CPGI 점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불법사금융 이용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의 도박행동에 대해 스스로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불법사금융 이용이 더 많았으며, 실제 도박심각도 점수가 높을수록 불법사금융을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변수	B	S.E.	Wals	자유도	유의확률	Exp(B)
성별	-.655	.217	9.097	1	.003	.519
삶의 만족도	-.568	.133	18.235	1	.000	.567
자기평가도박심각도	.385	.112	11.725	1	.001	1.470
CPGI	.100	.017	35.568	1	.000	1.105
df = 4, -2 Log Likelihood = 810.985, Nagelkerke R2 = .306, p <.001						

※ 성별(0=남자, 1=여자)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 중 불법사금융 이용자와 일반 카지노 도박자와의 비교를 통해 과도한 도박과 불법사금융의 폐해를 살펴보고, 불법사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재산을 탕진하고 카지노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들의 악순환적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천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카지노 도박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더 높았으며, 특히 불법사금융 이용자(82.2%)는 대조군인 일반 카지노 도박자(64.1%)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chi^2=26.788, p<.001$). 이는 남성이 여성보다 도박성향과 도박중독 모두에서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남성은 도박중독과 관련된 인구나사회학적 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 평가된다(Griffiths, *et. al.*, 2010; 김영호, 2011: 6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가 실시한 2014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에서도 남성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8.9%로 여성의 2.0%보다 약 4.5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문제성도박자의 비율은 남성 2.8%, 여성 0.2%로 큰 차이가 나타났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4. 10). 남성은 중독행동에 있어서 지배적 관계, 운동, 게임, 불법약물, 알코올, 담배, 성행동에 있어서 여성보다 더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MacLaren & Best, 2010), 특히 어린 나이에 도박에 노출된 남

성들이 도박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ad, *et. al.*, 2010). 따라서 우리사회에서 학교, 직장, 교정기관, 군부대, 예비군, 민방위대 등 집단화된 남성들이 있는 곳에서의 도박중독 예방교육과 스크리닝을 통한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사회적 체계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 있다.

둘째, 조사 대상자 중 강원도에 거주하는 비율이 불법사금융 이용집단 20.5%, 대조군 9.8%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chi^2=20.151$, $p<.001$).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강원도 거주 이유는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파산과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카지노 인근지역 장기체류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강원랜드 주변지역인 사북·고한·태백 등지에는 2013년 9월 기준 약 1천명의 카지노 장기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혁구 외, 2013:3). 이혁구 외(2013)의 연구에서 카지노 장기체류자들이 강원도에 머물고 있는 주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끊겼기 때문이다. 장기체류자들은 도박중독에 빠지면서 신용을 잃었고,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안고 있다. 이들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돌아갈 곳이 없다. 또한 이들은 개인 내적 차원에서 자포자기의 심리가 유난히 강하다. 이들은 도박중독으로 인한 파산으로 ‘학습된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삶을 포기하고 카지노 게임에 집착한다. 카지노 장기체류자들이 카지노 주변에 머무는 또 다른 이유는 카지노 인근지역이 보통의 사회관계에서 요구되는 예의나 윤리의식, 심지어 ‘도덕’마저도 무장 해제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카지노 인근지역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오갈 데가 없는 이들이 비정상적이 아닌 정상으로 대우받는 곳이다. 카지노 장기체류자들은 서로간의 심리적 연대를 통해 결속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이들을 카지노 주변지역에 장기체류자로 묶어두고 있다(이혁구 외, 2013: 94-100). 따라서 카지노 장기체류자의 재활과 사회복귀는 국가 차원의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 정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강원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카지노 장기체류자들을 위한 지역사회 아웃리치, 거주와 직업재활 서비스 등이 포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셋째, 불법사금융 이용집단은 대조군인 일반 카지노 도박자 집단에 비해 자신의 도박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t=12.048$, $p<.001$), 실제 CPGI(도박심각도) 평균점수에서도 대조군보다 도박심각도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t=14.005$, $p<.001$), 문제도박자에 해당하는 점수(12.8점)를 나타내었다. 이태원(2009; 2010)의 연구에서도 카지노를 출입하는 과도한 도박자들의 병적도박 비율은 56.0~58.8%에 달했으며, 강원랜드 도박자의 병리적 도박 비율이 외국과 비교해서 매우 높음을 지적하였다(이태원, 2010: 27).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도박자들은 자신의 도박 문제를 부정할 수 없을 정도의 밑바닥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 중 도박중독에 빠지기 전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카지노에서 그들은 모두 패배자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돈을 잃었기에 이성적이기 보다는 정서적인 논리에 따라 도박중독자의 병리적 행동을 하게 된다. 도박에서의 연속된 패배는 카지노 게임을 해서는 안된다는 자각보다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는 자기비하로 연결되어 계속 도박에 집착하게 한다(이혁구 외, 2013; 김용근, 2014). 따라서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구체적인 실태와 도박문제를 평가하여 이들의 개별적이고 심리내적인 문제에 심층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일반 카지노 도박자에 비해 술과 약물을 오남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t = -6.428, p < .001$), 자살사고와 자살시도를 경험한 경우도 더 많았다($t = -6.285, p < .001$). 도박중독자에게 알코올은 도박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우울과 불안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사용되곤 했으며, 반대로 알코올이 도박에 대한 열망을 촉발시키기도 했다(Griffiths, *et al.*, 2010). 과도한 도박은 대개 다른 행동상의 문제들과 심리적인 문제들이 함께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도박문제를 더 악화시키거나 반대로 과도한 도박이 이 문제들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Griffiths, 2007). 문제성 도박자 중 물질남용 등의 공존이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신체적 질병들(불면증, 고혈압, 심장병, 소화성 궤양 등의 위장 장애, 그리고 편두통)을 포함한 광범위한 의료적 문제들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Daghestani, *et al.*, 1996; Griffiths, *et al.*, 1999; Griffiths 2004). 또한, 선행연구들은 문제도박과 자살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도박문제는 자살생각, 자살시도, 그리고 자살성공의 위험을 증가시킨다(Gupta & Derevensky, 2002; Pierre R., 2011). Phillips 외(1997)는 1969년-1991년 사이의 사망자 중 라스베이거스, 리노, 애틀랜타 등 미국 내 대규모 도박장이 있는 지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방문객), 그리고 도박장이 없는 타 지역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자살 수준을 비교 연구한 결과, 도박장이 개설된 지역사회의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자살 수준이 현저하게 높았으며, 특히 라스베이거스 시의 거주자와 비거주자 자살 수준이 가장 높았다(김영호, 2011: 9에서 재인용).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며, 도박중독의 치유와 재활 그리고 불법사금융 이용의 문제는 알코올과 약물사용, 우울과 자살 문제 등 정신건강 문제와 연결해서 개입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일반 카지노 도박자에 비해 이혼 경험이 더 많았으며($t = -6.279, p < .001$), 가정폭력 경험도 더 많았다($t = -5.010, p < .00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2014. 9)에 따르면 우리나라 습관성 도박자 10명 중 9명이 가정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도박중독자 배우자의 40%가량이 이혼과 별거를 고려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문제성 도박은 개인적 생활, 가족 기능을 붕괴시키는 가장 심각한 지속적이고 부적응적인 행동이다. 도박자들은 가족과 주변사람들로부터 도박비용을 구하거나 자신의 도박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관계를 악화시킨다.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이러한 모든 부정적인 과정을 거쳐서 가족과 분리되며, 더 이상의 지지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의 재활을 위한 개입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개인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가족, 직장, 후견인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째,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실직 경험이 더 많았다($t = -8.397, p < .001$). 도박의 결과로 인한 불법사금융 이용은 ‘도박 빚’, ‘재정문제’, ‘법률문제’와 연결되며,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몰락과 사회적 지위의 하락은 도박중독자의 경제적 재기를 어렵게 한다. 이들에게는 도박 빚과 관련된 재정 및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며, 개인 치료 뿐 아니라 가족 치료 또는 사회성 훈련 등의 개입 또한 요구된다.

일곱째,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대조군에 비해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 = -11.419, p < .001$). 도박문제가 심각할수록 도박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삶의 질이나 자존감 그리고 사회적지지 수준은 약화되어 있으며, 사회적 갈등 수준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 주관적 삶의 질, 자존감, 사회적지지 수준이 향상된다면,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심리적 적응력이 강화될 수 있다(김경훈·배정규, 2007). 그러므로 도박으로 인한 불법사금융 이용자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도박중단과 함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생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과 심리적 적응력 강화를 위한 개입이 중요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도박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다음과 같은 실체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첫째,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과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김용근(2015)의 연구에 따르면 불법사금융에 대한 문제의식은 이미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되어 왔다. 2012년 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사행산업 건전화 및 도박중독 예방지유 대책’을 안건으로 상정하면서, 사행산업 현장에서 중독자가 절망적 상황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사채, 전당포, 대출업체 등 불법금융행위’에 기인한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불법도박에 대한 단속권을 갖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감독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 검찰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불법도박과 불법사금융행위에 대한 특단의 단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강원도 정선경찰서에 불법사금융 단속 전담부서를 신설할 필요가 있으며, 상시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구적 노력이 필요하다. 불법사금융은 도박중독의 악순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고리이다. 불법사금융이 존재하기에 도박의 문제가 더 심각해지며, 카지노 장기체류자들이 불법사금융에 의존하여 카지노 주변에 더 머무르기도 한다. 검찰과 경찰의 불법사금융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하며,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자의 행정력도 이러한 단속에 힘을 보탬 필요가 있다. 즉, 강원랜드 주변 불법 대부업자 문제에 대해 강원랜드 자체 및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강원랜드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단속권한(사법권)이 없지만,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카지노 내 청원경찰을 추가 임용하고, 카지노 영업장 내·외부에 특별 단속반 및 24시간 피해고객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유관기관(경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장 내 불법사금융 근절과 같은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강원랜드 카지노 주변 장기체류자가 된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카지노 주변 장기체류자에 대한 실태조사는 카지노 주변 장기체류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사회정치적인 관점에서의 개념적 정의와 함께 이들의 발생원인과 욕구, 개입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희생의지가 있는 도박중독자의 출구마련을 위해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 구제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카지노 주변에서 장기체류중인 도박중독자들의 치유와 재기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재활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 이들에 대한 치료적 개입에 있어서는 도박중독 문제의 치유와 함께 직업재활, 사회적 지지체계와 가족지원,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자살예방과 심리상담 서비스, 재정 및 법률상담, 신용회복 프로그램 등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사례관리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카지노 주변 장기체류 도박중독자 중 회복자를 도박중독 예방강사로 양성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도박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함께 진행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도박에서 벗어난 ‘회복자’들을 예방 전문가로 교육하고, 이들을 준전문가(Para Professional)로 활용하는 것이다. 도박중독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상담가 혹은 예방 교육자로 활동하게 되면, 그들과 같은 도박문제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동기강화적인 관계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예방교육에 있어서도 이들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박과 불법사금융의 위험성에 대해 사실감 있는 정보로 각인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강원랜드 주변 장기체류 도박중독자의 상담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도박중독 상담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내담자의 욕구에 대한 적합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는 내담자가 기관의 서비스 존재여부, 상담 전문가의 수, 정기적인 상담 서비스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이용가능성(Availability), 공간적·시간적 근접성(이동거리, 시간, 비용) 등의 접근가능성(Accessibility), 내담자의 상담 대기시간, 기관 운영시간, 전화상담 서비스 등과 관련된 이용편의성(Accommodation), 내담자 자신의 소득과 보험적용 여부, 서비스 가격 등과 관련된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상담 이용자의 태도, 기대, 사회문화적 배경, 공급자 특성 등이 반영되는 상호수용성(Acceptability) 등으로 설명된다(Penchansky & Thomas, 1981).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강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와 사행사업체 기관인 강원랜드 KL중독관리센터가 도박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 두 기관의 접근성 강화를 통해 강원랜드 주변 장기체류 도박중독자에 대한 선별과 조기발견, 의뢰, 치유서비스 제공, 재활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하다.

일곱째, 정부, 사행사업자, 그리고 도박자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책임도박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이 개념은 도박장 이용자 보호와 도박의 폐해 감소, 폐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 사행사업자, 도박자가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도박 행위의 최종실행자는 이용자 개인이기에 도박중독의 위험과 폐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 도박과 관련된 자신의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그러나 정부와 사행사업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와 환경, 홍보 체계 등을 구축하여 사행심을 조장하는 광고 등의 홍보를 금지하고, 착취적이고 기만적인 도박게임이 실행되지 않도록 감독하고, 도박중독의 위험과 폐해에 대해 시민들과 도박 이용자들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알릴 책임과 의무가 있다. 특히 사행사업자는 시민들이 사행사업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행사업장 안에서, 그리고 사행사업장을 나와서까지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행사업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시민들에게 불법사금융 문제와 도박중독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이 시행될 필요

가 있다. 사행사업자는 도박폐해에 취약한 사람들 즉, 청소년, 음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입장을 금지하는 지침을 지킬 필요가 있으며, 입장객 전원에게 과도한 도박이 중독의 위험과 심각한 폐해를 동반할 수 있다는 위험 정보와 위험대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행사업장 안에서는 베팅한도 초과금지, 음주금지, 질서유지 등 장내 법령규제 사항을 지키도록 해야 하며, 과도한 사행심이 유발되었을 때 이용자 스스로 절제할 수 있게 유도하고, 게임을 건전한 레저로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사행사업장을 나와서는 이용자가 불법사금융 이용과 기초질서를 위반하거나 시민에게 위압감을 주는 등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중독문제가 발생한 이용자가 다시 사행행위를 하지 않도록 이들의 재활과 사회적 재기와 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 고은애, 구택곤, 김준하, 채희진. 2006. 사행산업문제에 대한 경제적 접근과 해결방안 모색. 경우론집. 37: 1-25.
- 김경훈, 배정규. 2007. 경륜 및 경정 도박성 게임자들의 게임 이용실태, 주관적 삶의 질, 자존감 및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2): 367-382.
- 김교현, 이흥표, 권선중. 2005. 한국사회의 병적 도박 유병율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2): 227-242.
- 김미선. 2011. 도박중독과 범죄와의 관련성 검토.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 1-21.
- 김영호. 2011. 대학생 문제도박의 성별 차이와 건강위험행동과의 관련성.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8(5): 61-71.
- 김용근. 2014.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의 불법금융 이용실태 및 경험. 질적연구와 중독의 세계.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79-126.
- 김용근. 2015. 강원랜드 카지노 도박자의 불법금융 이용실태 및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1): 227-255.
- 김진숙, 이근무, 이혁구. 2011. 도박자 배우자들의 회복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해석학적 근거이론방법. 사회복지연구. 42(1): 83-115.
- 내일신문. 2015. 02. 23. 총성에 날아간 링컨의 금융교육.
- 뉴시스. 2014. 01. 15. '강원랜드 청정 바람'...사채는 물론 호객행위도 집중단속.
- 박철호. 2008. 사행산업 건전화 방안 연구. 여행학연구. 29: 21-48.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07. 불법도박의 실태조사 및 대책 연구.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08. 10. 합법적 도박이 도박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부정적 결과를 중심으로.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014. 09. 2013사행산업백서.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2014. 10. 2014 사행산업 이용실태 조사. 서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손덕순, 정선영. 2007. 도박중독자 실태 및 중독수준별 특성과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6: 377-407.
- 심진현. 2002. 병적 도박 환자 배우자의 스트레스 지각과 대응전략.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엠케이(MK) 뉴스. 2012. 02. 08. 악어와 악어새는 공생관계? No!.
- 이민규 · 김교현 · 김정남. 2003. 도박중독 실태와 도박 중독자의 심리사회적 특성: 지역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2): 399-414.
- 이영분, 이은주. 2003. 충청 지역의 도박중독 실태와 가족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4: 177-202.
- 이인혜. 2006. 카지노와 지역주민의 삶. 카지노와 폐광촌: 강원폐광지역사회변동연구(2). 서울: 일신사. 283-302.
- 이태원. 2004. 카지노 출입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도박중독 그리고 도박동기와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15(2): 175-216.
- 이태원. 2006. 카지노 도박이 지역사회 범죄에 미치는 영향: 정선군 지역에 대한 경찰통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17(2): 101-136.
- 이태원. 2009. 과도한 도박의 부정적 영향들: 카지노 출입자들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0(1): 1251-1284.
- 이태원. 2010. 책임도박조치에 대한 지각된 효과: 카지노 고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9(2): 1-37.
- 이혁구, 이근무, 김용근. 2014. 카지노 주변 장기체류자들의 일상세계: 총체적 문화기술지 접근. 사회복지연구. 45(1): 287-316.
- 이혁구, 이근무, 김용근. 2013. 강원랜드 주변지역 고객 실태조사. 정선: KL중독관리센터.
- 이홍표. 2002. 도박의 심리. 서울: 학지사.
- 이홍표. 2003a. 도박동기와 병적 도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8(1): 169-189.
- 이홍표. 2003b. 비합리적 도박신념이 병적 도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2): 415-433.
- 정은균. 2002. 우리나라 사금융시장 현황과 축소방안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규만, 이홍표. 2004. 위험추구 소인과 도박동기 및 도박 심각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4): 1061-1075.
- 채정아. 2014. 단도박자의 회복유지과정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aldo, V., M. Cristofolletti, S. Majori, M. Cibin, C. Peron, A. Dal Zotto, and R. Trivello. 2006. Relationship between Pathological Gambling, Alcoholism and Drug Addiction. *Annali di Igiene*. 18(2): 147-153.

- Daghestani, A. N., E. Elenz, and J. W. Crashton. 1996. Pathological Gambling in Hospitalised Substance Abusing Veterans. *Journal of Clinical Psychiatry*. 57: 360-363.
- Ferris, J., and H. Wynne. 2001. The Canadian Problem Gambling Index: User Manual Canada: Canadian Center on Substance Abuse.
- Grant, J. E. and S. W. Kim. 2002. Gender Differences in Pathological Gamblers Seeking Medication Treatment. *Comprehensive Psychiatry*. 43(1): 56-62.
- Griffiths, M. D. 2004. Betting Your Life on It: Problem Gambling has Clear Health Related Consequences. *British Medical Journal*. 329: 1055-1056.
- Griffiths, M. D. 2007. *Gambling Addiction and Its Treatment Within the NHS*. London: British Medical Association.
- Griffiths, M. D., A. Scarfe, and P. Bellringer. 1999. The UK National Telephone Helpline - Results on the First Year of Operation.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5: 83-90.
- Griffiths, M. D., H. Wardle, J. Orford, K. Sproston, and B. Erens. 2010. Gambling, Alcohol, Consumption, Cigarette Smoking and Health: Finding from the 2007 British Gambling Prevalence Survey. *Addiction Research and Theory*. 18(2): 208-223.
- Gupta, R. and J. L. Derevensky. 2002. Adolescents with Gambling Problems: From Research to Treatment.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6(2-3): 315-342.
- Lesieur, H. R., S. B. Blume, and R. M. Zoppa. 1986. Alcoholism, Drug Abuse and Gambling.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10: 33-38.
- MacLaren, V. V. and L. A. Best. 2010. Multiple Addictive Behaviors in Young Adults: Student Norms for the Shorter PROMIS Questionnaire. *Addictive Behaviors*. 35(3): 252-255.
- Phillips, D. P., W. R. Welty, and M. M. Smith. 1997. Elevated Suicide Levels Associated with Legalized Gambling.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7: 373-378.
- Pierre, R. 2011. *Game 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Gambling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International Center for Youth Gambling Problems and High-risk Behaviors. www.youthgambling.com.
- Penchansky, R. and J. W. Thomas. 1981. The Concept of Access: Definition and Relationship to Consumer Satisfaction. *Medical Care*. 19(2): 127-140.
- Productivity Commission. 1999. Australia's Gambling Industries. <http://www.pc.gov.au/projects/inquiry/gambling>
- Shead, N. W., J. L. Derevensky, and R. Gupta. 2010.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ssociated with Youth Problem Gamb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 Health*. 22(1): 39-58.

Welte, J. W., G. M. Barnes, W. F. Wiczorek, and M. C. Tidwell. 2004. Simultaneous Drinking and Gambling: a Risk Factor for Pathological Gambling. *Substance Use & Misuse*. 39(9): 1405-1422.

김영호: 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고(논문: 도박 심각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2010년 8월), 현재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알코올 및 약물중독, 도박중독, 교정복지, 정신보건사회복지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대학생 문제도박의 성별 차이와 건강위험행동과의 관련성(2011)”, “한국 대학생의 도박참여 실태와 도박중독 유병률 조사(2011)” 등이 있다(kyh1212@eulji.ac.kr).

김용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현재 강원랜드 KL중독관리센터에서 중독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중독, 임상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철학, 질적연구방법 등이 주요 관심분야이며, 주요 논문으로는 “카지노 주변 장기체류자들의 일상세계: 총체적 문화기술지 접근(2014)”, “여성 노인 도박자 생애사 연구(2014)” 등이 있다(jesusworker@kangwonland.com).